

# 금호타이어, 순이익 회복 “난항”

신영증권, 중국공장 지분법 평가손실 ... 2008년까지 회복 어려워

신영증권은 10월31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예상보다 큰 지분법 손실이 나타나 밸류에이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만3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낮추었다.

박화진 연구원은 “7월부터 가동한 중국 현지법인 공장의 지분법 평가손실로 인해 전체 평가손익이 전분기 대비 188억원 증가했다”며 “4/4분기 영업이익의 회복가능성이 높긴 하나 예상보다 큰 지분법 평가손실로 인해 2006년 주당순이익(EPS)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2008년까지 순이익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화진 연구원은 “12월로 예정된 모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금호타이어측이 맡게 되는 배분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추후 재무구조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31>